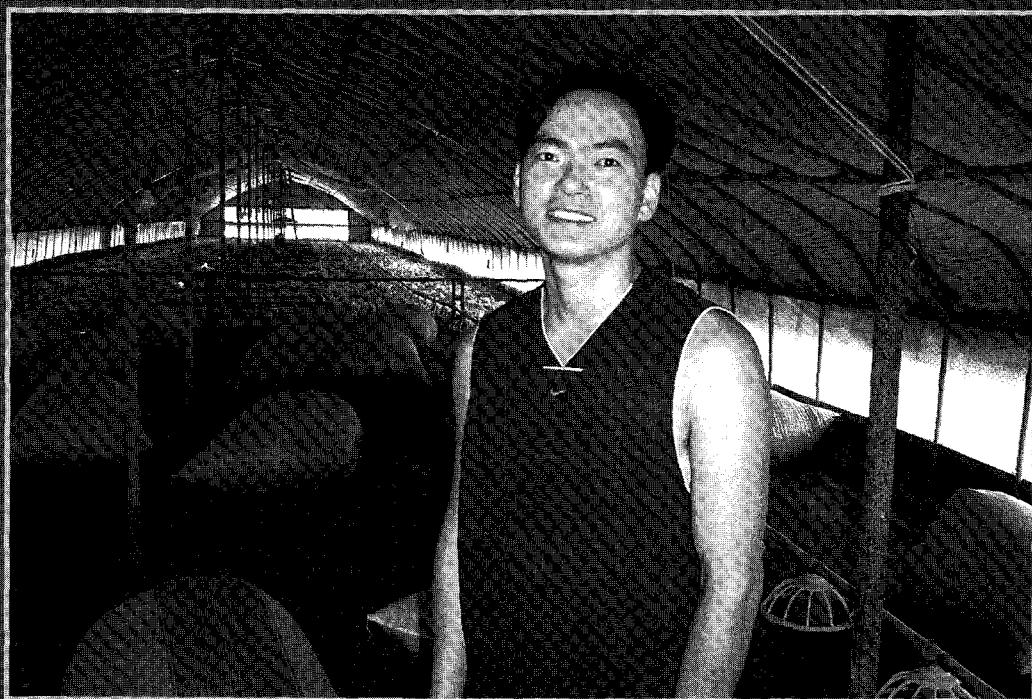


## | 삼현농장 · 무항생제 도전농장 |

## 자연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닭을 사육한다



▲ 바른농업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김득남 사장

안전식품 열풍이 불면서 축산업계도 친환경축산과 유기축산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양계분야도 무항생제를 사용하는 농가나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 위주로 친환경 농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환경축산이나 유기축산은 농협중앙회에서 2005년까지 시험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수용하는 축산농가는 드문 상태이다. 더구나 유통업체에서 유기축산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유통업체들은 무항생제 축산몰브랜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업계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유기축산, 친환경축산농가에 근접한 농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달에는 화성시에 소재한 삼현농장을 찾아보았다.

## 2대에 걸친 농장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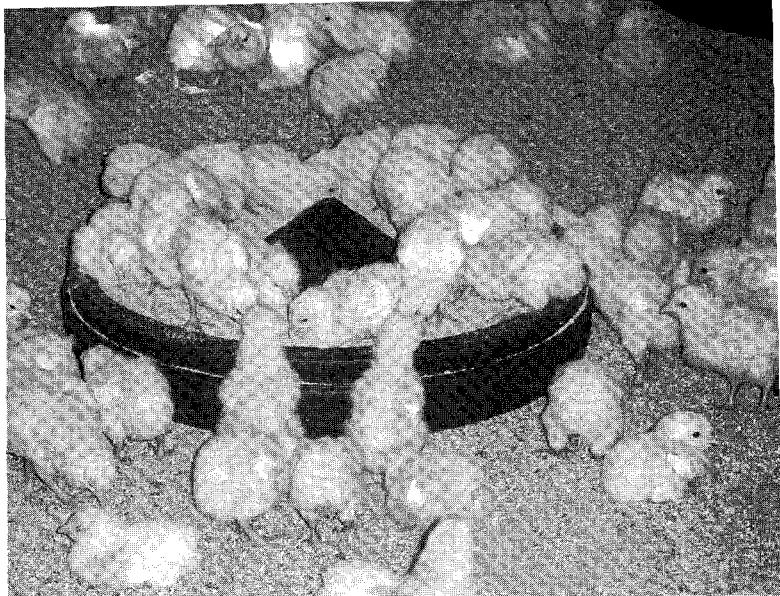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삼현농장은 화성시 조암에서 15km 떨어진 곳이다. 산기슭에 세워진 농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충성 4개동의 육계사가 있고, 계사 뒷면은 서해안에서 해풍이 불고 있었다.

본 기자를 맞아 준 김득남 사장은 아버지 김준혁 사장이 정농회(바른 농업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양계업에 매진해 오고 있다.

### 미생물제제로 면역력을 키운다

“우리 농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단지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 뿐입니다.” “폐사가 나도 그대로 사육하다보니 출하율이 90~96% 수준입니다”. 농장을 소개하는 김사장은 지금까지 최고의 성적은 98%로 다른 농장이 103%라고 자랑하는 것이 부럽지 않는 표정이다.

스타트 사료는 10일까지 급여하고, 전기사료는 20일까지, 후기사료는 출하 때까지 급여한다. 35~40일 사육기간에 특별히 C회사 사료만 급여하고, 뉴캣슬병 백신만 접종함에도 별다른 질병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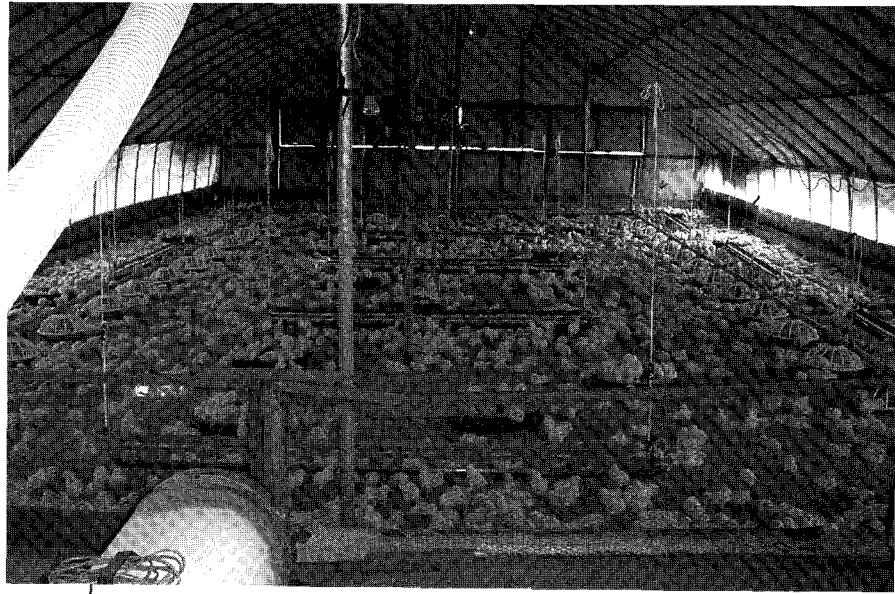


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다. 설령 질병이 발생해도 전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폐사가 나면 그대로 사육한다는 것이다. 단지 꼭 사용하는 것은 H농업연구소에서 판매하는 토양 미생물제이다. 이 제제는 닭의 대사 기능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이 김득남 사장의 말이다. 이렇게 키운 닭은 평균 체중 1.4kg을 유지하게 되고 체중의 균일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단가는 최하 1,400원/kg을 받고 육계가격 변동에 따라 최고 1,800원/kg 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복(伏)에 육계가격이 2,000원/kg 유지할 때 1,800원/kg에 출하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보통 병아리는 1주일 간격으로 입식하여 출하가 쉽도록 했다. 마치 산란계를 사육하는 느낌이다. 물론 일반 육계 농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음계사 5,000수(계사 크기 40m 80m), 소망계사 7,000수(계사 크기 60m 80m), 사랑계사 7,000수, 충성계사 7,000수로 총



삼현농장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제제



농장내부

26,000수 규모이지만 한 계사(7,000수 규모)는 비어 두었다.

## 계분처리는 출하 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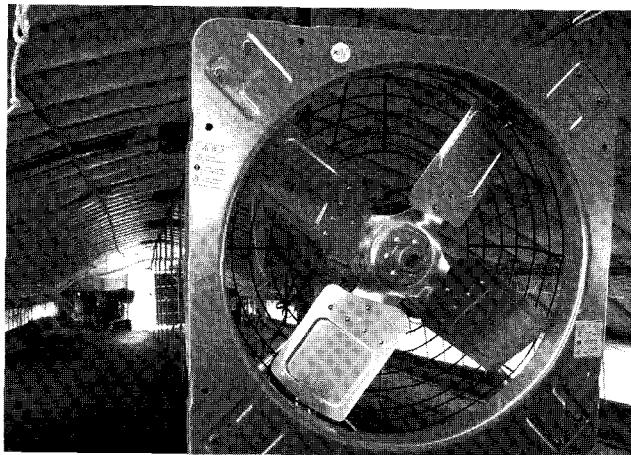
사양관리 방법은 입식을 위해 모든 계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운 다음 토양미생물제를 뿌리고 그 위에 왕겨를 편다. 그리고 다시 토양미생물제를 뿌린다.

토양미생물제 발효를 위해서는 세면바닥보다는 흙바닥이어야 가능하다는 김득남 사장의 조언이다.

사용한다.

여름에는 계사 온도 관리가 관건인데 20인치 핸을 입구와 중간 뒷면에 배치하여 터너실 환기를 해주고 양쪽에 원치는 모두 옮겨준다. 다행스럽게도 계사 140평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평당 50수 미만으로 사육하여 열 발생율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닭 출하 후와 입식전에는 항상 소독을 하고 있으며, 닭뉴캐슬병의 접종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다. 김득남 사장은 지금까지 감보로 증상은 있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것이 자랑거리이다.



여름철 환기에 사용하는 중간휠

## 유기농산물매장에 판매

김득남 사장이 생산한 닭은 인근의 CR유통업체에서 도계하여 생활협동조합과 유기농산물매장으로 자연닭이란 브랜드를 붙여 판매되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소비매장에서 토막닭으로 6,200원/kg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8,500원/kg에 판매되고 있다. **약제**

(취재 | 김종준 과장 3kjj8@hanmail.net)